

[TV]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Name/Time.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토요일 저녁 생방송! 모닝와이드', '이 땅의 꿈'.

국제 무기 밀거래 소재 액션 블록버스터

주말의 명화 '로드 오브 워'(MBC·14일 새벽 0시50분)



'내셔널 트레저'를 통해 자신의 인기가 여전한
을 과시했던 톱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무기거래
상을 연기하는 풍자 코미디. 연출은 수작 '가타카'
로 주목을 받았던 앤드류 니콜 감독이 맡았는데,
그는 '가타카', '트루먼 쇼' 등의 각본을 쓴 실력을 발휘하여 이번에도
직접 각본을 담당했다.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사라진 무기
들은 세계 각국의 무기 밀거래상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통되기 시작
하고, 이 와중에 '전쟁의 제왕(Lord of War)'이라 불리며 독보적인
위력을 떨치는 남자, 유리 울로프(니콜라스 케이지)가 나타난다.

미국 개봉에선 첫주 2,814개 극장으로로부터 주말 3일동안 939만
의 수입을 기록,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인간의 양심을 소재
로, 풍자극 혹은 블랙코미디 특유의 과장과 비틀거림의 영화적 재미,
재치넘치는 묘사(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갖 질한 페인트가 변지는 장
면이나 비행기 분해 장면 등), 니콜라스 케이지 특유의 표정 연기 등
앤드류 니콜 감독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심의에선 120
분 18세를 받았다가 118분 15세로 정해졌다.

TV 하이라이트

춤(검무)으로 다시 사는 인생



행복의 오솔길(EBS·오전 6시20분)은 내
앞에선 '춤'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77세의
노장이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꽃피는 박
분순 어르신인 주인공이다. 최근 한 방송사
의 드라마에서 일러지기 시작한 '검무'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춤을 추는 것. 요즘은 방송
의 인기를 타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열풍
이 불고 있다는데...

실인구 기습으로 검산성 함락

대하드라마 '대조영'(KBS1·밤 9시30분)은
실인구는 20년 전 자신이 속았던 것과 똑같
은 방법으로 안시성에 있는 대중상의 발을

뒤편 놓고 고구려 중부 전선으로 향한다. 설
인구의 기습으로 평양성 방어의 최전선인
검산성은 함락되고, 지명전은 장렬히 전사
한다.

승주 알아보지 못하자 괴로워

누나(MBC·오후 7시55분)는 다시 깨어난
승주 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기억은 되살아나
지만 승주는 알아보지 못한다. 승주는 작은
엄마(수아모)는 알아보는데 왜 자신은 알아
보지 못하냐며 괴로워한다.병원에서 수아의
이상한 행동을 본 건수는 핑크에게 수아가 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다. 핑크
는 수아가 한 행동 그대로 노할아버지 팔꿈
세게 비틀어잡으며 야단친 걸 흉내낸다.

책 내게 된 준수 마냥 행복

베스트극장 '열구리와 허벅지'(MBC·밤
11시40분)은 3년만에 책을 내게 된 작가 준호
(이승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마지막 일주
일 동안 편집부장의 차남택 아파트로 들어
가게 된다. 귀에 따가울 정도로 쏘아 붙이던
아내 경미(유혜정)의 잔소리로 듣지 않고 먹
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기
대감에 부풀어 준호는 마냥 행복하다.

중국대륙 배경 대서사 시리즈



영웅대전 楚漢志(초한
지)(채널CGV·오후 7시30
분)은 세계 역사상 가장 극
명하게 대비되고, 가장 첨
예하게 경쟁했던 두 영웅 항우와 유방의 이
야기를 그린 작품. 전국시대 말과 진(秦) 통
일 한(漢) 제국의 흥망성쇠에 이르러까지 광
활한 중국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영
웅의 스펙터클한 대서사 액션 시리즈물이다.
어릴 적부터 고국 땅을 되찾겠다는 뜻을
세운 기백이 뛰어난 용장 항우.

메릴 스트림, 파워풀한 액션

리버 와일드(XTM·오후 1시10분)는 차분
하고 정적인 영화에 주로 출연해온 메릴 스
트림이 파워풀한 액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
았던 '리버 와일드'. 히트작 '요람을 흔드는
손'을 감독한 커티스 헨슨의 짜릿한 스릴러
연출이 돋보인다. 아이들과 함께 휴가 여행
을 떠나기로 한 게일(메릴 스트림)은 남편
톰(데이빗 스트러던)이 회사일로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자, 아이들만 데리고 할아버지
와 할머니가 사는 타른 강으로 떠난다.

케이블·위성TV 13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SBS 드라마, SBS 스포츠, Xports, Kuni, GTV, 한경TV, EBS1, KBS Prime, EBS2, and BBS 불교방송. Includes program names, times, and brief descriptions.